

이진웅 목사 STP 13기

제게 있어서 설교는

늘 스트레스였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.

설교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설교를 그만두고 싶었습니다.

그래서 토요일 밤은

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.

그러던 때에

하나님은 STP세미나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.

어둠속에서 헤메던 저에게 한줄기 빛과 같았습니다.

기대와 불안이 섞인 제 마음은

세미나를 참석하며

말할 수 없는 기쁨과

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감격으로 벅차 오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

저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

하나님을 몰랐습니다.

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모르는 자였습니다.

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였습니다.

그러나

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고

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깨닫게 되면서

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설교는 그 자체로 행복이며

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설교는

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

하나님을 충만하게 말할 수 있는 설교는

가장 기다려지고

가장 하고싶고

가장 외치고 싶은 설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.